



대기업부문
조길준
(주)만도 수석연구원



중소기업부문
김양수
애경화학(주) 수석연구원

과 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달의 엔지니어상' 1월 수상자로 대기업부문에 (주)만도 조길준 수석연구원을, 중소기업부문에 애경화학(주) 김양수 수석연구원을 각각 선정하였다. 대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주)만도 조길준 수석연구원은 15년간 자동차 부품 개발을 담당해온 엔지니어로서 차량의 주행조건 및 노면의 상태에 따라 댐퍼의 감쇠력을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실시간 제어하여 승차감 및 주행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연속가변식 전자제어 현가장치를 개발하여 양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趙) 수석이 개발한 현가장치는 국내 도로 현실을 반영한 알고리즘에 따라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수입제품에 비해 그 성능이 뛰어나며, 국내외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재차 확인받은 우수한 제품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생산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나 승차감과 조종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연속가변식 현가장치와 같은 첨단 자동차부품 부문은 열세를 면치 못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독일,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양산에 성공함으로써 국산 자동차의 고급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수입대체, 부품 원가 20% 절감 등 경제성 면에서도 뛰어난 신기술개발을 통해 자동차 부품의 전자화 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물론 고난이도·고신뢰성의 자동차 부품 독자개발 기반을 확립하였다.

우레탄 경화제 원천제조기술 확보

중소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애경화학(주) 김양수 수석

연구원은 17년간 화공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수입에 의존했던 코팅용 우레탄 경화제 개발을 위해 제품의 설계에서 완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외국산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TFE(Thin Film Evaporater) 제조 신공법을 도입함으로써 생산 향상 및 품질 향상으로 국내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및 동남아, 중동 등에 활발히 수출하여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페PET를 이용한 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제조방법을 고안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뿐 아니라 원가절감에 기여하였고, 접착제로서의 기본물성뿐만 아니라 식품포장용에 맞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적합성을 고려한 식품포장용 우레탄 접착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양산함으로써 기존 수입품에 대체하였다. 이 제품은 현재 미국식품의약국(FDA) 공인기관의 무독성 테스트를 통과하여 환경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개발활동으로 회사의 매출증대와 국가 경쟁력강화에 공헌하였다. '이달의 엔지니어상' 은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및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엔지니어를 발굴·포상하여 산업기술 인력의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현장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시상해오고 있으며,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엔지니어 각 1인을 선정, 과학기술부 장관상과 트로피, 포상금 1천만 원이 수여된다. 

글_류통은 기자 teryu@kofst.or.kr